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홉번째인 93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2백82편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5편, 동상20편, 장려50편등 총 7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호에는 8편을 실는다.

동상

# 고마운 우유

김 양 원  
(부산장서국교 6-3)

“딩동”  
“딩동”  
“.....”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열쇠를 가방에서 꺼내 아파트 문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안 계셨다.

‘에이, 내가 올 시간에 집에 계시면 안되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연습장 종이에 싸인펜으로 쓴 편지가 눈에 들어온다. 내가 잘 볼 수 있게 거실입구에 놓여져 있었다.

‘양원아, 손씻고 냉장고에서 콩우유 꼭 마시고 학원가거라.’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 시장갔다 빨리올게)

‘정말 우리엄마는 못 말려’

나는 손을씻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꼭 뒤에서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는 느낌이다.

시원한 유리컵에 가득채운 콩우유를 꺼내 젓가락으로 저은후 단숨에 마셨다.

물론 냉장고에는 똑같은 컵에 혼이 것도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집에는 2년전 까지만 해도 누나, 동생이 오빠, 동생으로 보였었다.

길거리를 가다가 장난을 쳐도

“이놈, 동생을 때리면 쓰나?”

그럴때면 동생혼이는 겸연쩍게 웃고 말았지만 나는 속으로 슬며시 화가났다.

3살이나아래인 동생이 오빠로 보이다니 .....

아무튼 혼이는 태어날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자랐지만 나는 입이까다로워

서 인지 어머니 젓을 때는 순간부터 철저히 먹지를 얹었으니 부모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온갖것을 먹이려다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는 분유가 아닌 생우유를 먹으며 걸음마를 했다고 한다.

이쯤되니 어머니 입에서는

“양원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크다. 칼슘이 듬뿍 들었으니 성장기에는 꼭 필요하다.”

는 말씀이 녹음기 처럼 틈만 나면 자동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얼마전 부터는 콩을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 우유에 타서 마시게 했다. 입이 까다로운 내가 싫증을 내기라도 하면 코코아에 섞어도 주고 과자에 부어서 먹게도 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혼이 반 밖에 못 먹지만 지금은 그래도 누나티가 난다나?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잘 자라지만 우유를 몰마시듯 먹는 키 큰 서양사람들을 걷는질이라도 해서 적당하게 우유를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되겠다.

피부도 아름답고 늘씬한 누나로 남기 위해서라도.

우유, 화이팅!

동상

# 우리학급은 우유대장

김 지 연  
(충북청원옥포국교 4- )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춘천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아 갔습니다. 젓소들이 먹이를 먹고 우유를 짜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며칠 쉬는 동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젓소들과도 다정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부터 학교에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유를 먹으라고 돈을 대 주셨기 때문에 우유의 참 맛도 모르고 또한 우유를 만들어 내는 젓소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우유를 먹어 왔습니다. 어느 때는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춘천에 다녀 온 후 우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유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생겨서 어머니에게

“우유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 것이 예요?”

라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지연아,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철분등 우리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어느식품 보다도 좋으니 지연이도 한 번 먹어 보렴”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침 우유, 빵을 신청하는 날이 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유는 별로 신청하지 않고, 빵을 많이 신청하는 것이 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영양가가 높고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를 신청하지 않을까? 젓소들이 우리를 위해 애써 만들어낸 것인데 …….’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애들아, 너희들은 영양가 높은 우유를 안 먹고 밀가루로 만든 맛없는 빵만 신청하니?”

하며 우유를 신청하라고 몇 번이나 아동들에게 말하고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우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우유를 먹으면 힘도 세 지고 몸도 튼튼해져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가 꼭 우유공장의 판매원 아저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아이들은 모두 내 말이 맞다며 박수를 치며 “선생님, 저 우유로 바꾸겠어요!”

하며 모두 우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우리반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우유를 신청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감짝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나에게 우유판매원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날 우러러 보는 것 같았고 연설을 잘 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부터는 우리집은 우유를 간식으로 또는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연이 덕분에 우리집이 우유 가족이 되었구나!”

하시며,

“지연이, 효진이도 많이 먹어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춘천 젓소가 너에게 준 선물인 것이야.”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튿날 급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급의 급식 바꾸니는 우유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급의 2~3배 정도 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모두 앉아 우유를 먹으니, 학급 분위기도 한결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 곡곡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젓소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말고 맛있게 먹어서 몸에 살도 찌우고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이 되어 튼튼하고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밀바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

# 내친구 우유

권 효 정  
(서울이문국교 6-4)

“우와” 내가 선생님께 우유를 세개씩이나 신청하자 우리반 아이들이 던진 소리였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2개가 제일 많이 신청한 것이었는데 오늘 내가 우유 세개를 신청해서 아이들이 놀라워 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서는 “효정이는 우유를 더 많이 먹어서 더 튼튼해지겠네” 하셨다.

내가 이렇게 많이 우유를 신청할 것은 어머니께서 “우리가족이 우유를 잘먹으니까 많이 신청해라”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학교우유는 값도 싸고 맛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간 우유를 책가방에 넣고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부러워해서 나도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1개만 신청할걸” 하는 후회스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유를 책가방속에 넣고 학교를 하면서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 보면 우유가 쏟아져 책가방속을 다적셔 놓았기 때문이었다.

책은 책대로 공책은 공책대로 책이 아니라 쓰레기로 되어 있었다.

쓰레기처럼 돼버린 책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척 속이 상하였다.

이날 이후로 나는 우유를 책가방속에 넣지않고 집에올때 들고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었다.

비오는 날이면 우유를 제대로 잘챙기지를 못해서 옷만 다 비에 젖기도 하였다.

어떤날은 우유를 땅에 떨어뜨리고도 잊어버려서 우유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음악이나 미술이 들은 날은 책가방도 무겁고 멜로디온, 미술도구가방, 신주머니 등등을 챙기느라고 우유를 신주머니에 넣어서 새는 우유때문에 실내화가 다젖기도 하였다.

이런 우유일 때문에 나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났다.

하지만 ‘내가먹는 우유를 누가 챙기랴’하는 생각에 나는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유를 3개 받고 있다.

우유때문에 화가나고 속이상해도 책상위에 있는 우유를 보면 우유가 날보고 웃으며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화가 풀리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우유를 먹고나선 우유를 먹지 않았던 허약했던 때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해 진 것 같았다.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가족과 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준 우유가 예전에는 정말 미워서 먹기 싫어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고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나는 내옆에 있는 우유를 마시며 우유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유는 지금도 내몸속에서 영양분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고맙다 우유야 역시 넌 내친구야’

동상

# 우유와 내 얼굴

김 미 주  
(군산남국교 5-2)

나는 원래 얼굴이 검은 편이다.

어머니에게서 감동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 도 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장난으로 그러시겠지만 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신경질이 난다.

그리고 계속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어지지?’

‘연탄집 딸도 아닌데...?’

하며 내 얼굴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는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우유를 먹으라고 했는데 3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께서 우유 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우유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런데 그 때 내 귀가 솔깃해 지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이 먹게되면 그 얼굴이 하얀 솜사탕 처럼 하얗게 돼요”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얼른 우유를 먹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 날 부터 내 얼굴이 하얗고 예뻐진 다는 생각에 나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나는 학교에서 거울을 보며 우유를 마셨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무 어리석고 뺨피하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차츰 우유를 먹게되니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도 같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미주야, 너 요즘 우유를 먹더니 예뻐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 제 얼굴이 하얗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런것도 같구나!”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내 얼굴도 하얗게 된다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셨다.

그래서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랬더니 내 동생과 어머니께서도 막 웃었다.

완전히 우리집은 웃음 바다가 된 것이다. 그 날 이후로 나는 계속 우유를 먹었다. 그래서 내 동생도 나 처럼 우유를 먹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께서도 우유를 드셨다.

우유 덕택에 내 얼굴도 하얗게 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우유가 고마웠다.

나는 우유를 먹으면서 좋은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다.

우유가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줄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5학년이 된 나는 운동회 연습때문에 얼굴이 다시 검어졌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우유를 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다시 우유를 많이 먹게 되어서 기뻐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얼굴도 하얗게 되고 더 예뻐져야지’

## 동상

# 고마운 우유

이재우

(전주전라국교 6-5)

윈스턴 처칠은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먹이라고 했다. 난 이 말을 외숙모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우리 사촌 동생이 태어난지 백일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사촌 동생의 백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외가에 갔다.

“삼촌, 숙모 정건의의 백일 축하 해요.”

숙모는 백일이라고 떡을 준비 하였다. 난 그 떡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다. 우리는 밥과 국을 먹고 있는데 정건이는 우유를 먹고 있었다. 난 숙모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다.

“숙모, 아기들은 밥과국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요?”

“그거야 우유로 섭취하지”

난 숙모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다.

어떻게 아기들은 고작 우유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하며 숙모에게

“아이들은 고작 우유로 그 많은 영양분, 지방, 단백질, 칼슘, 무기질, 비타민등 어떻게 이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재우야 참 좋은 질문이다. 금방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 다른 쪽으로 말이야”

난 숙모의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쪽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난 숙모의 말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숙모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난 숙모의 답을 기대 하듯 얘기 하였다. 그러자 숙모는

“아까 네가 고작 우유로 어떻게 그 많은 영양분 무기질 비타민 또 칼슘을 섭취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지”

난 고개를 끄덕기며 “예”라고 대답을 했다.

“아기가 우유로만 살 수 있다는 건 그 우유 속에 아까 네가 말한 것들이 우유 속에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생각하다가

“숙모 진짜 그러네요. 난 미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숙모 우유는 아기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아니지 우유는 아기부터 어른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까지도 좋다고 봐야지.”

난 숙모의 말을 듣고 하루에 우유는 얼마나 먹어야 알맞냐고 물어 보았다. 숙모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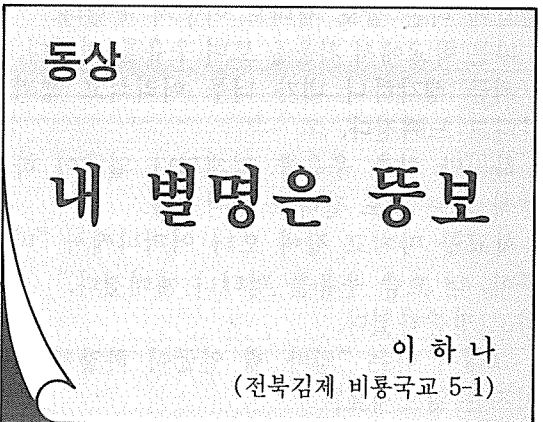
~6학년 아이들은 2~3개 정도를 먹으면 된다고 하셨다.

난 숙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우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

내가 우유를 먹기 싫다고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그것도 안되면 그 우유를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 우유를 재밌다고 길거리에 터트린 내가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다음 부터는 우유를 휴지통이나 길거리에 버리지 말아야 겠다. 꼭 말이다.’

우리반에는 그런 아이가 없지만 다른 반에는 그런 아이가 소수로 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면 우유는 좋은 것이니 휴지통에 버리거나 우유를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그리고 난 숙모의 말을 듣고 우유를 먹어 보니 그 동안 먹기 싫고 맛이 없던 우유가 참 맛있었다. 난 그래서 지금도 우유를 아주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집 에서는 나를 똥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릴때 부터 우유를 많이 먹고 몸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 에서는 나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인데 삼촌은 웃음반 장난 반으로 항상 나보고 똥보라고 부른다.

어느날 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배가 고파서 식빵과 우유를 잔뜩 가져다놓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삼촌께서 일을 하시다가 나를

보셨다. 삼촌께서는 잠시 일을 멈추시고,  
“똥보 너 더 똥똥해 질려고 그렇게 많이 먹니”

“하나야 그만 좀 먹어라, 삼촌도 좀 먹자.  
우리집 똥보가 우유를 다먹어 버리니 이 삼촌이 먹을 우유가 있어야지 이 똥보야!”

엄마는 똥똥하면 못쓰니 조금씩 먹고 날씬한 몸을 만들라고 늘 성화이며, 우리 엄마의 걱정은 내몸이 똥똥한 것이 걱정이다. 내 옆친구 진아의 날씬한 몸매가 부럽다. 그런데 우유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견딜 수가 없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제일먼저 냉장고를 열고 뭐 먹을 것이 없나 뒤적뒤적 찾아본다. 먹을 것이 없으면 괜히 화가난다. 냉장고에 우유와 식빵이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가져다 마음껏 먹어야 기분이 좋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다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가 한 컵정도만 있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은 아빠 엄마께서 바쁘셔서 그런줄 알고 그냥 넘겨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다. 아버지께서 말을 먼저 하셨다.

“하나는 항상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는 것이 걱정이다. 5학년이나 되었으니 참을성을 길러야지, 앞으로는 우유 한컵씩 먹고 견뎌 보아라. 알았어 똥보되면 시집도 못간다.”

그 뒤 나는 참기가 힘들지만 밥을 조금씩 줄이고 간식으로 먹던 빵도 안먹고 간식으로 우유만 한컵씩 먹었다. 그런데 어느날 삼촌께서 나를 보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하나 살이 좀 빠진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때 같으면 어이 똥보하던 삼촌이 똥보 소리를 못하게 몸이 날씬해 진것이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살을 쭉 뺄수 있다 구요 염려 마십시요”

그래서 나는 우유를 하루에 1컵씩만 마신다. 거기에다가 목욕을 할때도 제일먼저 우유비누로 씻고 목욕이 끝난 마지막에도 우유비누로 씻어야 개운하다. 그리고 우유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는 식구들은 나를 보고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우유가 너의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나는 소새끼 인가봐 우유만 보면 사족을 못쓰니 말이야”

나는 이말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우유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였다. ;

또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

“우유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을까?”

내가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다시 내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것이다.

“똥똥하고, 우유로만 나를 키웠어, 우유로 앓키우고 밥만 먹여서 키우면 그렇게 우유를 앓좋아 하지”

하는 마음으로 엄마에 대한 반항이 생겼다.

다음부터는 다른 음식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먹고 우유만 한컵씩 꼭 먹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나도 꼭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나는 오늘 나의 일기에 참을성에 대해서 써 보았다. 참고 견뎌보자 참고 또 참자 라는 내용으로 일기를 썼다.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먹어 버렸다. 그런데 식구들은 못말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내가 왔다갔다 하니깐 또 번덕쟁이 같다고 말을 하시며 식구들의 모든 시선이 나한테 집중이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먹어야겠다는 마음 뿐이다. 그런데 나의 별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알려졌다. 매우 걱정이 된다.

그런데 실과 시간에 조리기구와 음식 만들기 시간이 되었는데 영양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우유는 영양덩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젖소를 키우는 아저씨들한테도 좋다고 하시면서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어쩔지 기분이 좋다.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한컵

씩만 먹고 고기 종류는 좀 덜먹어라” 하시  
는 것이다. 나는 그뒤로 다른 음식은 줄이고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한컵씩만 먹고 진아  
같은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다고 굳게굳게  
다짐해 본다.

동상

## 우리엄마 최고!

강은실  
(대구효신국교 6-7)

“부릉부릉 부르릉~”

아침 7시가 되었을까? 이 시각이면 매일  
어김없이 엄마의 우유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창밖에서

“나 왔어요”

하고 신나게 외친다. 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서 나의 단잠을 깨운다. 이렇기 때문  
에 나에겐 시계가 필요없다. 온통 땀투성이  
엄마, 무척 힘들어 보이고 땀투성이지만 아  
침 햇살에 비치는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  
은 금강산에 몰래 숨어사는 이슬 맺힌 금강  
초롱 꽃과 같이 찬란하게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뒤돌아선 엄마의 모습에는 쓸쓸함과  
피곤함이 엮보였다. 땅이 꺼져라 한숨쉬고  
엄마를 뒤돌아 보면 어느새 엄마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나는 얼른 내방을 깨끗이 치운  
다. 내가 흘린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엄마의  
얼굴을 적서 주름이 사라지는 상상을 하니,  
몸에 커다란 날개가 돋힌듯, 몸이 가볍고 날  
아갈 것만 같았다. 시계는 이런 나를 놀려주  
려고 그러는 것인지 시간을 빨리 내보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책가방을 메고 엄마가 정

성스럽게 쓴 도시락을 손에 꼬옥 쥐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일하  
러 나가시는 엄마에게 안 보일때 까지 계속  
손을 흔든다. 힘겹게 다시 일을 나가시는 엄  
마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집안일을 하고, 조  
용히 여가선용도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나가시고, 가끔씩 코피를 터트리느 모  
습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점점 뜨거워지고,  
왈칵 울음을 터트리고 싶다.

원래 아빠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도 적당  
한 소비지출은 할 수 있지만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 힘든 일을 하  
시는 것이다. 우유 배달원 겸 주부, 엄마, 아  
내, 이 모든일이 엄마가 하시는 일이다. 우  
유배달, 이 일만이 우리가족의 가장 큰 꿈인  
‘커다란 집’을 마련하는 길이다.

내가 교실에 도착할 무렵, 여자 아이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바로 내일 9월 7일 시  
행되는 ‘회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학기 때는 나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급격  
히 많아져서 잘 될것 같다.

그러던 중 어떤 아이가

“애들아! 우리반 여자 중에서 은실이  
회장이 되면 은실이 엄마 덕분에 한 톨 내  
는건 문제 없겠다.”

하고 말하자 여자 아이들이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꼭 참았다. 근심에 싸인 엄마  
의 얼굴이 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은 우유배달하시는 우  
리 엄마를 고생스럽다거나 힘들겠다면서 비  
웃거나 참 수치스럽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천  
만의 말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엄마가 ‘하늘 땅 별 땅’ 만큼 자랑스럽  
고 대통령아저씨의 엄마보다도 더 세계에서  
최고예요!



동상

# 나의 키와 우유

박지혜  
(서울고대부속국교 6-1)

“지해야! 우유 한 잔.”

우리집에서는 일상 생활용어가 돼버린 말이다. 아빠, 엄마, 또 오빠도 키가 작지 않은데 나만 유난히 꼬맹이다.

남들이 ‘꼬마야 꼬마야’하고 부르지만 키가 작은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키가 작은 것을 매우 걱정하시는 아빠께서 ‘키크는 책’도 사다 주셨다. 키크는 책에 나와 있는 비결중 첫번째가 ‘우유를 많이 마셔라’다. 그래서인지 엄마, 아빠께서 우유를 마시라고 말씀하신다. 난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아니 싫어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우유를 잘 안마시자 아빠께서 우유마시는 표까지 만들었다. 하루하루마다 우유를 마시면 동그라미표, 안마시면 가위표를 했다. 아빠는 매일 검사하셨다. 내가 우유마시는데 대해 그렇게 열성적인 아빠는 이세상을 다 뒤져봐도 없을 것이다. 물론, 우유먹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좋지는 않았다. 매일 우유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키크는 책’에 나온 대로라면 하루에 800ml나 되는 우유를 다마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양일 것이다. 언젠가는 500ml나 되는 우유를 ‘벌컥 벌컥’ 단숨에 들이킨 적도 있다. 그후 1~2시간 뒤쯤엔……. 발이 달도록 화장실에 다녀야 했다. 그래서 그때 꽤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경험을 겪고

‘어떤것이든 너무 무리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우유도 맛있는 것이 많지만 엄마께서 “지해야 그런우유를 마시면 이빨도 상하고 몸에도 해로워”

하고 언제나 말씀하신다. 엄마, 아빠께서 어렸을땐 초코, 딸기우유는 커녕 흰우유조차 먹기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냉장고에 우유가 남는 일은 아예 꿈도 못꿀 일이었다고 하신다. 그리고보니 우리 냉장고엔 우유가 2~3통(1000ml)나 있었고 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키를 키우겠다는 내가 잘못된것 같다. 뿌려야 거둔데…….

우유는 건강,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한다. 내친구 한명은 목욕을 할때마다 우유로 세수하고 때밀고, 별짓을 다한다. 건강에 좋다는 개네 엄마의 말을 듣고 언제나 그렇다. 내가 생각하기에 짹짹할 것 같지만 피부미용이라면 돈 200~300만원 까지 들인다던데 그런것은 식은 죽먹기 일것같다.

우유는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 나도 이렇게 좋은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를 쑥쑥 키우겠다. 내가 키가 크는 것은 아빠, 엄마께도 선물이 될 것이다. 지금도 목이 켄켄해짐을 느낀다. 냉장고에 신선한 우유 한잔을 맛 봐야겠다.

‘우유 화이팅, 지혜 화이팅’

